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2. 6. 26 ~ 2022. 7. 16 제267호

‘서울퀴어행사’ 서울광장서 개최 허용... 시민들 우려

서울시가 음란 동성애 행사인 ‘서울퀴어문화행사’의 서울광장 개최를 허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15일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신청한 7월 12~17일까지 서울광장 사용 건을 7월 16일 하루로 줄이면서 가결했다.

시민위는 다만, 무대 설치 등 행사 준비를 위해 실제 사용 기간은 7월 15일 오후부터 했다. 또 신체 과다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하지 않는 조건도 달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건을 어길 경우 차기 축제 시 서울광장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주최 측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사 주최 측이 이러한 조건을 잘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운영단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음란 자제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엿보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가 퀴어행사의 광장 사용 기간은 대폭

줄였지만 조직위가 퀴어행사의 핵심인 서울퀴어퍼레이드를 16일에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어, 결국 서울시가 퀴어 음란 행사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섭 목사(서울동성애퀴어행사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 대변인)는 “6일 동안 사용하겠다고 한 걸 하루만 허용해 주면서 마치 많은 제한을 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대중에 각인되는 건 퀴어퍼레이드가 열리는 하루”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동성애퀴어행사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5일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애퀴어행사는 개최될 때마다, 동성성행위가 성윤리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들의 찬반의 가치관이 격돌하는 사안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보는 공공 광장에서 노골적으로 과도한 신체노출한다.”며 서울시가 퀴어행사 측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그동안 진행돼 온 퀴어행사의 음란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인됐다. ‘음란행위’에 대한 사전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람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245조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공연음란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퀴어행사에서 벌어지는 각종 음란행위는 동성애자들의 성욕을 부추기게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다수의 국민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다. 이 행사가 공연음란죄로 오히려 벌금을 부과해야 할만한 일임에도 축제로 포장해 스스로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셔서 부끄러운 일에서 돌이켜 경건하고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자.

[GNPNEWS]

Interview



조정의 목사(유평교회)

“교회결정에 순종하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경기도 용인의 남단 봉령리에 위치한 유평교회. 아담하지만 시골교회라고 하기에는 다소 규모를 갖춘 전원의 목가적 풍경을 가졌다. 교회 뒤편의 넓은 잔디도 교인들이 야외활동

을 하기에는 더없이 좋아 보였다. 이 교회를 찾게 된 데는 그레이스투코리아의 고정 필진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탁월한 성경적 지식과 따뜻하지만 복음적 글쓰기를 하고 있

는 조정의 목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그의 글은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도 게재되고 있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51)

‘예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어떻게 다 쓸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역사 속에 나타난 그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 곧 나’요, ‘나 곧 죄’인, 존재적 죄인인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모습으로 보내어 십자가에 ‘내가 되어 죽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받아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완벽하게 내가 되어 죽으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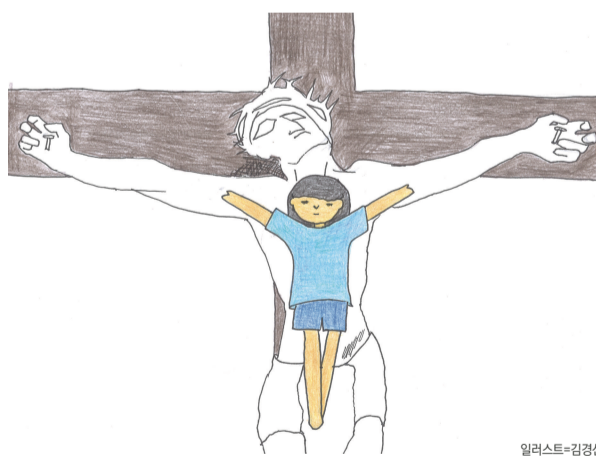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모든 저주와 죽음을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이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이듯이, 이제 그 구원에 참여하는 나의 믿음도 실제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철저히 내 대속의 죽음인데, 주님의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내가 실제로 죽은 적이 있습니까? 대강 죽었다고 치는 것 말고, 다시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도록 내 마음의 가죽을 베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워서 죽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을 믿음 안에서 그대로 받아서, 그토록 놓지 못했던 나의 병든 자아에 대하여 죽음을 적용하고, 실제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이 죽음이 당신의 실체가 되었습니까?

십자가는 죽음 없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완전한 부름으로 초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않고 이 죽음에 참여하기를 결



일러스트=김경선

단합니다.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한 끈적끈적한 나의 병든 자아에 마지막 정을 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 자아도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지정의(知情意),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죽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율법의 정죄에 대하여 죽었고, 지옥의 영원한 저주에

대하여 죽었고, 죄와 사탄에 대하여 죽었고, 나의 꿈, 나의 명예, 나의 애착, 나의 생명, 내 것이라고 말한 나의 모든 추구, 나의 의, 자기만족과 쾌락, 우울증, 연민, 더러운 죄,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포토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제공: 전만규 선교사

사진은 우크라이나의 우즈호로드(Uzhgorod) 침례교회에서 운영하는 공황의 집(고아원)에서 전쟁 난민 자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길어지면서 한국교회는 물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만 3만 명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 사망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전사자가 하루에만 200명이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전쟁은 참혹하다. 전쟁이 휩쓸고 간 뒤 남는 것은 폐허와 전쟁고아, 전쟁 범죄의 고통, 난민, 슬픔과 절망과 탄식이다. 누가 이곳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나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세베로도네츠크의 변화산 교회(Church of the Transfiguration) 성도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신 주님께로 피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길 기도하자.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 같이 포학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사 25:4-5)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민주공공, 이슬람 무장 세력 급습... 18명 살해하고 주택 방화

콩고민주공화국(민주공공)에서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인 연합민주군(ADF) 소속으로 의심되는 무장 반군세력이 이투리 지방 이루무 지역의 오토마베레 마을을 급습해 칼과 총으로 최소 18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많은 주택에 불을 질렀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한편 민주공공은 올해 1월에도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의 연계 공격으로 1200명이 사망했다.

무슬림들의 테러 배후에 있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모든 도모가 속히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먼저는 이 땅의 교회를 복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서며 모든 이가 십자가로 화평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파키스탄, 또 '신성모독' 혐의로 기독교인 형제 2명에게 사형 선고

파키스탄 판자브주 법원이 온라인상에 신성모독적인 내용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 형제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영국의 '법률 및 정착 지원센터(CLAAS)'는 이들을 대신해 항소를 제출한 상태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무슬림들이 기독교인 등 종교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원한을 갚는 데 악용되고 있다.

거짓으로 신성모독 혐의를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파키스탄의 무슬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로 인해 굳어버린 이들의 양심을 일깨워주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신성모독이라는 악법이 속히 폐지되게 해주십시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용기를 잃지 않고 주를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한국, OECD 자살률 1위, 청소년·청년 증가 추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최근 '2022 자살예방백서'를 발표했다. 2020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만 3195명으로 전년보다 604명(4.4%) 감소했으나, OECD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평균인 11.0명의 2.2배에 달해,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청소년(9~24세) 자살자 수는 957명으로 전년보다 81명(9.2%) 증가해, 2016년부터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그 어떤 나라보다 크고 많은 교회 규모와 경제적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에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 주십시오. 정신적 황폐함과 죽음의 미혹에 휩싸인 영혼들에게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십자가로 이 땅 구석구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GNPNEWS]

nehemia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2년 6월 27일 ~ 2022년 7월 16일

6월 27일 ~ 7월 2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6.27~30(10~16시) ▶서울 마포 / 금강아산병원(이**)010-5248-4147, 6.27~7.1(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6.30(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7.1(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7.1(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7.1(11~13시) ▶서울 양천 / 그리스도가 전부되는 교회(박**)010-6810-2949, 7.1(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그 외 6교회 진행중.

7월 4일 ~ 7월 9일 7.4-9(10~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7.5(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7.5,7-9(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7.7(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7.8(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7.8(11~13시) ▶서울 양천 / 그리스도가 전부되는 교회(박**)010-6810-2949, 7.9(09~18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그 외 11교회 진행중.

7월 11일 ~ 7월 16일 7.12~15(14~16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7.14(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7.15(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7.15(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7.16(09~21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 외 7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nehemia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nehemia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서울행정법원, '대면예배 금지'는 잘못... 종교자유 헌법적 권리 침해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대처와 관련,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예배회복을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서울시와 은평구청을 상대로 2021년 1월과 2월 각각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 집합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10일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자연은 "2021년 7월 16일에 '예배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적 권리'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은 이번이 최초"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보다 '정부가 교회의 대면예배 모임을 결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다시는 공권력에 의해 예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길 사무총장은 "그동안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회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예자연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예배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 권리"라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예배 참석인원은 19명



▲ 연세중앙교회 예배 현장. 제공: 연세중앙교회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교회에 대한 정책과 대응이 위헌적이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명됐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규 박사(백석대 석좌교수)는 지난해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 세미나에서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이런 기독교회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전국 교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하달하는 것은 코로나 환경, 혹은 방역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와 신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고 협조하는 일은 당연하지만, 종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예배 금지, 교회당 폐쇄, 구상권 청구 같은 조치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남는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에 이어 일상생활의 자유를 위해 선배들이 뿌린 씨앗을 오늘의 한국교회가 지키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한국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보다는 국가권력에 굴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다시 이런 불신앙의 자세를 보이지 않도록 결단해야 한다. [GNPNEWS]



기획 | 6.25전쟁과 기독교

6.25전쟁 72주년... 한국교회, 평화의 사도로 부르심 기억해야



▲ 6.25전쟁 당시 참전 유엔군을 위해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군목들의 모습과 예배 드리는 모습. 출처: 월드뷰 캡처

기독교세계관 잡지 월드뷰 6월호는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다양한 관점으로 전쟁과 한국사회, 교회를 조명했다. 그중 최상도 호남신학대학교 교수가 기고한 '6.25전쟁과 기독교'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6.25전쟁 발발 72년이 지났다.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 상황이므로 항상 전쟁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 종식으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았으나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각각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됐다. 이후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이, 9월 9일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해 한반도의 38선은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의 제1경계선이 됐다.

해방 후 지리적 분단은 정치적 분단인 동시에 교회의 분단이기도 했다. 어떤 형태로든 해방 후 남과 북의 교회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소극적 동조 내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했다.

남북교회, 양측의 이데올로기 지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자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분단된 남북 교회는 모두 각각의 위치에서 전쟁을 적극 지원했다. 남한의 교회지도자들은 1950년 7월 대전제일교회에서 '대한기독교구국회'를 결성, 국방부 및 사회부와 연결하여 선무, 구호 방송 등으로 전쟁을 지원했다. 나아가 기독교 청년들로 구성된 의용대 조직과 이들의 전선배치까지 시도했다. 또 1950년 10월에는 평양 탈환을 축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약 3000여 명의 신도들이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남쪽에서 파견된 윤하영, 한경직, 김양선, 이인식 등의 장로교 대

표들을 환영했다. 이들은 해방공간에서 월남했던 목사들이었다. 1.4 후퇴 후, 부산으로 피난하던 시절 남한의 교회는 한경직과 류형기를 미국에 파견하여 한국의 정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전쟁 승리를 위한 적극적 행동에 나섰다. '전쟁 승리를 통한 통일'이라는 남한교회의 태도는 1951년 여름 휴전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자 극명하게 드러났다.

휴전 반대 입장을 고수한 이승만 정부의 입장에 동조해 남한교회는 정전 반대, 휴전 반대 집회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했다. 특히 휴전이 임박했던 1953년 6월 13~15일 사이 서울에서는 약 7000여 명이, 부산에서는 1만여 명이 참여한 휴전 반대, 북진통일을 외치는 구국기독교신도대회가 열렸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쟁 중 북조선 기독교도연맹을 중심으로한 북한 교회는 1950년 6월 인민군의 서울 탈환 환영예배를 드렸다. 7월에는 김창준 목사를 포함한 기독교도연맹 대표들이 서울에 내려와 1947년에 활동이 중지된 좌파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기독교민주동맹을 재건하기도 했다. 8월 5일 평양 및 북한 전 지역에서 개최된 궐기대회를 통해 전국의 교인들에게 인민군의 승리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나아가 8월 기독교 교역자 궐기대회를 열어 인민군대에 더 많은 무기를 헌납하도록 모금운동을 전개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남북한 교회의 '전쟁의 승리를 통한 조국통일'의 입장과 그에 따른 전쟁 동조 행위는 서로 다르지 않았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

6.25전쟁은 내적으로 볼 때,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모한 희생과 파괴의 상처만 남긴 전쟁이었다. 이 파괴적 전쟁, 참혹한 살상과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지, 동조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십자가 죽음(고후

5:18~20, 엡 2:13~16)을 통한 복음으로의 통로라는 사명을 저버리고 정부에 예속되어 지배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시녀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로 6.25전쟁을 통해 남북한 교회의 십자가는 전쟁의 상징이 됐다.

여전히 남북한 교회는 6.25전쟁으로 강화된 각각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따라 6.25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이하는 이날까지 여전히 '휴전'의 냉전 체제 속에서 상호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전쟁 중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 피난을 가지 않고 남아 있는 교인을 끝까지 지킨 목회자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전쟁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기보다 평화적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순교자들의 죽음을, 남한교회의 '반공주의 재생산을 위해, 6.25

전쟁의 산물인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유포'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때, 분단 체제 휴전으로 전쟁의 위협에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분명하다. 그것은 세속적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인한 전쟁 폭력에 같은 폭력으로 대항, 동조, 지지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 준 자기희생적 사랑과 용서를 통한 '화해'의 성취라는 하늘의 방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드는(미 4:3) 평화의 사도로 부름 받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GNPNEWS]

인민군·빨치산이 기독교인 잔혹하게 학살한 이유, 공산주의 무신론 거부, 공산정권 비협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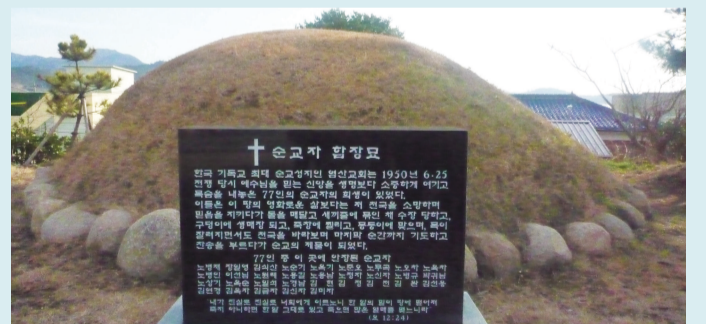
6.25전쟁 기간 전국 8도에서 5만 9964명이 학살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중 전남 지역에서만 72%에 해당하는 4만 3511명이 학살됐다. 또 여기서 2만 1225명이 전남 영광군에서 피살됐다. 영광군은 이념 갈등이 극심한 곳으로 군인뿐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서도 심한 갈등이 존재했다. 5603명이 희생된 전북 지역에서 2364명이 학살된 고창군은 행정 구역상 전북에 속해 있지만 전남 영광군과 이웃에 있는 지역이다. 전남 지역에서도 영광과 이웃한 나주군은 3596명, 장성이 4306명, 함평이 1954명, 영암군에서 7175명이 학살됐다.

이곳에서는 한 마을 또는 교회 성도를 집단으로 학살한 사건이 많다. 1950년 10월 3일부터 3개월에 걸쳐 영광군의 연산교회에서 전체 성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7명이 순교했다. 또 아월교회는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전교인 65명 모두가 순교했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참혹하게 죽였다.

인민군 6사단은 서해안으로 남진해 논산 병촌성결교회에 들어닥쳐 우익 인사들을 검거했다. 우익 인사 122명을 체포해 마을 창고에 감금하고 온갖 고문과 폭행을 했다. 그 가운데 19명은 논산으로 압송하고, 7월 21일에 1차 학살에 이어 8월 2일에 21명을 2차로 학살했다. 8월 22일에 또다시 20명을 학살하고, 9월 11

일에는 교인들과 우익 인사 가족 600명을 학살했다. 9월 17~28일 동안 병촌교회 성도 66명을 연행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농기구 등으로 죽였다. 정수일 집사(당시 31세)는 자신의 시부모, 시동생, 아들, 딸, 조카, 가족 10명이 둘러앉아 기도와 찬송을 하면서 자신들을 죽이려는 공산당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권면했지만, 공산당들은 몽둥이와 삽, 곡괭이, 죽창으로 구타해 죽여 구덩이에 파묻었다.

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무신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셋째,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앞잡이, 서양인의 앞잡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넷째, 기독교 종교 시설 등을 인민군의 군사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다섯째, 기독교인들은 공산당의 혁명을 반대하는 반혁명적인 언동과 만행을 감행한 악질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섯째, 기독교인들은 북한 정부를 비방하고 북한 공산 정권에 비협조적이므로 회유나 설득으로 안 되겠다고



▲ 공산당을 거부해 순교당한 연산교회 성도들의 합장묘. © 복음기도신문

전북 정읍시의 두암성결교회에서는 설립자 김용은 전도사가 죽을 비롯 23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황기식 한국기독교 성지순례선교회 전문위원장이 밝힌 공산주의자들의 기독교인에 대한 학살 이유는 5가지다.

첫째, 기독교가 부르주아 잔재 세력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둘째, 해방 후 북한은 기독교 세력을 이용해 인민공화국을 세우려

판단해 탄압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산주의는 신을 믿지 않고 유물사관을 신봉하므로 기독교인들은 공산당을 반대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유를 귀하게 여기지만, 공산당은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반대했다. 그래서 북한 공산당은 기독교를 무참하게 학살했다. [GNPNEWS]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조정희 목사 (유평교회)



• 1면에 이어
- 교회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네요.
“이곳 옆 마을이 유평마을입니다. 1965년 무렵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미국에서 온 매카피 선교사가 선교의 터전을 위한 목장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유평교회의 첫 시작이에요. 지금 교회 건물은 3번째로 이사 오면서 지어진 것이죠. 예수를 믿고 모인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목자가 되기도 하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교회에 정착해 주로 사역을 하게 되시면서 35년을 사역하셨어요. 그 분이 제 아버지세요.”
- 선교의 씨앗이 열매가 된 교회에서 아버지를 이어 목회자가 되셨군요.
“저는 시골 교회에서 가난하게 살다 보니 목회는 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쯤 교사를 하려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쳐 주려고 교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최종 목적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그게 바로 목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소명을 받고 목회를 하기로 했죠. 그렇다고 목사가 그냥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 세대의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조성훈, 염창훈 목사님), ‘우리는 곧 그만둔다. 우리가 그만두면 후임을 30대를 세울 것이다. 밖에서 초빙하지 말고 교회를 잘 알고 성도들과 같이 자란 사람 중에 성경적인 은사가 있고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게 더 좋지 않겠냐. 3명을 세우자.’고 하셨어요.”

교회가 기도하고
다음세대 목회자를 세우다

- 네. 이미 다음세대 리더를 준비해 오셨군요.
“후임자들이 신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미국 마스터스 신학교에 가기로 하고, 먼저 영어 공부부터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청년들이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마지막에는 저를 포함해 3명이 남았어요. 결국 그 3명이 신학을 하기로 했어요. 함께 했던 이병권 목사님은 여러 사정 때문에 한국에서 신학을 하기로 하고 저와 7살부터 친구였던 최종혁 목사님과 함께 미국에 가게 됐어요.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2년 정도 인턴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두 분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 놀랍군요. 교회가 후보자를 기도

하고 결정하고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 그게 바람직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목회자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 먼저 신학을 공부하신 게 아니라, 목회자가 된 이후 필요 때문에 미국 엠마오 성경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신 거죠. 그래서 다음세대는 반드시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버지는 존 맥아더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서울에서 100개씩 구해서 복사해서 들으셨어요. 영어를 잘하셨거든요. 그러다 로잔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는데, 그곳에서 교파가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복음은 다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보는 것이 열렸다고 해요. 이후 한인교회 초청으로 미국에 가셨다가, 존 맥아더 목사님 교회에 가보게 되셨어요. 거기에 마스터스 신학교가 있는 것을 보시고는 다음세대를 세우면 무조건 여기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 그 뒤를 이어받은 목회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은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간섭하지 않고 ‘너희가 결정하라.’고 하세요. 아버지는 35년 동안 30분 정도 설교를 해 오셨어요. 여기가 시골이라 하루 종일 농사일 하고 저녁 집회를 오시기 때문에 설교를 50분씩 듣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만 전달하자 생각하고 해 오셨는데, 존 맥아더 목사님한테 배운 저희는 무조건 55분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본문을 충실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30분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갑자기 저

에 적응했지만, 지금 먹는 잠곡밥이 훨씬 건강한 것이다. 적응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겸손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은퇴한 이후에도 같은 교회에 남아서 그렇게 지지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교인은 증가해

- 네. 한국교회에서 정말 보기 드문 리더십 교체 이야기네요. 요즘 교회 상황도 궁금하네요. 코로나 이후 교인들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는 성도가 오히려 늘었어요. 지금은 20% 정도가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매주 260명 정도가 예배에 참석하세요. 최근에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영적인 양식이었어요. 요즘 교인들은 봉사활동이 바쁘다 보니 정작 복음을 들을 기회는 별로 없어요. 진짜 복음이 뭔지,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은 게 아쉽지만, 자



▲ 조정희 목사 부부. © 복음기도신문

에 ‘조아담’이라고 적었어요. 진짜 아담이 선조라고 믿었던 거죠. 성경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믿었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공부 시간에 믿음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한 선생님이 말했어요. ‘엄마가 시장 가서 과자를 사올게 하면, 엄마가 돌아왔을 때 장바구니 열고 과자를 찾겠냐, 아니면 사왔겠냐고 생각하겠냐.’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달려가서 찾겠다.’고 하니 ‘그런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 ‘이게 믿음인가.’를 깨달았던 거 같아요.”
- 그런 믿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나요?
“흔들린 적이 많았죠. 주님께서 오시면 휴거된다는 걸 믿으니까 집에 왔는데 부모님 안계시면 ‘휴거되고 나만 남았구나.’ 하면서 불안해하고 친구 집에 전화해서 ‘너네 부모님도 안 계시니?’ 물어보고 그랬죠. 자라면서 중등학교 사춘기 지나면서는 저의 악함도 많이 보게 됐어요. 많이 의심도 하고 그랬지만,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는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오게 하셨어요. 지금 한국에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이방인처럼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미 웬만큼은 아니까 오히려 유대인처럼 전해야 돼요. 이들은 강사가 와서 자기가 죄짓다가 구원받은 이야기

를 전하면 안 통하죠. 그래서 제 사례가 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거 같아요”
- 신학을 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게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했고 사람을 섬기고 싶어서 공부하러 간 거였어요. 공부하면서 느낀 건 그냥 사람이 좋고 사람 섬기는 게 좋으면 꼭 목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목사 일을 한다면 결국 진리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진리로 목양을 하는 게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3명을 공부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매달 모인 헌금을 박박 긁어야만 겨우 학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주방에 물이 샌다고 해도, 스피커가 고장났다고 해도 돈 없어서 고칠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대단하게 헌신한 건데, 오래 공부를 한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 성도들의 헌신과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음세대 목회자가 세워진 거군요.
“제가 걸음마하는 아기 때부터 보시던 분들은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셔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저보다 한두 살 많은 형들이 저를 자신의 목회자라고 인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아요. 그걸 넘어가는데 있어서 주님이 말씀의 권위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조정희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된다는 게 매주 일마다 확실하게 나타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내와 같이 섬기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됐던 거 같아요. 결혼하고 미국에서 5년 살고, 들어와서 2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때 저는 담임 목사로 세워졌는데, 동시에 아내의 치료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중에도 아내가 같이 도와서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이 성도들에게는 사랑으로 와닿았나봐요. 아픈 게 힘들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은혜였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으로도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고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 그레이스투코리아에 다양한 칼럼들을 연재하고 계신데요, 다방면으로 정리가 참 잘돼 있더군요. 어떻게 이런 훈련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취미가 독서와 음악 감상이

를 전하면 안 통하죠. 그래서 제 사례가 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거 같아요”
- 신학을 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게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했고 사람을 섬기고 싶어서 공부하러 간 거였어요. 공부하면서 느낀 건 그냥 사람이 좋고 사람 섬기는 게 좋으면 꼭 목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목사 일을 한다면 결국 진리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진리로 목양을 하는 게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3명을 공부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매달 모인 헌금을 박박 긁어야만 겨우 학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주방에 물이 샌다고 해도, 스피커가 고장났다고 해도 돈 없어서 고칠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대단하게 헌신한 건데, 오래 공부를 한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 성도들의 헌신과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음세대 목회자가 세워진 거군요.
“제가 걸음마하는 아기 때부터 보시던 분들은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셔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저보다 한두 살 많은 형들이 저를 자신의 목회자라고 인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아요. 그걸 넘어가는데 있어서 주님이 말씀의 권위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조정희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된다는 게 매주 일마다 확실하게 나타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내와 같이 섬기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됐던 거 같아요. 결혼하고 미국에서 5년 살고, 들어와서 2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때 저는 담임 목사로 세워졌는데, 동시에 아내의 치료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중에도 아내가 같이 도와서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이 성도들에게는 사랑으로 와닿았나봐요. 아픈 게 힘들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은혜였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으로도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고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 그레이스투코리아에 다양한 칼럼들을 연재하고 계신데요, 다방면으로 정리가 참 잘돼 있더군요. 어떻게 이런 훈련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취미가 독서와 음악 감상이



▲ 유평교회 청년회 MT에서 청년들과 함께. 제공: 유평교회

희 설교를 들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때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아내가 몸에 좋다고 잠곡밥을 먹는다. 그러나 소화는 잘 안 된다. 그동안 30년 우리가 설교한 쌀밥

연스럽게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 있는 교회를 살리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사라지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사스와 메르스가 돌았을 때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병원



오랜 염원 피아노 레슨 시작... 아이들이 꿈꾸기를 소망하다



학교에 새로운 방과 후 활동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면서 오랜 염원이었던, 피아노 레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를 모르는 한국의 집사님과 목사님께서 피아노와 기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L국의 학교에는 피아노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입으로만 부르던 계명을 직접 눈으로 보고 쳐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기타는 현지 선생님이 가르칠 예정입니다. 수도에서 사 온 탁구대도 오후 시간을 통해 배우고 익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예체능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생겨나길 기대해 봅니다.

2년 넘게 이어 온 코로나의 여파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이곳도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득은 오히려 줄었지만, 거의 2배가 넘게 오른 물가에 나라도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휘발유와 경유는 한국과 비슷한 2000원대로 올랐고, 제가 있는 지역은 그마저도 부족해 3주간 기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는 주유를 하려는 오토바이들이 줄서

있어, 저희 학교 차량들도 간신히 주유를 했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출근도 하지 않은 6시부터 줄을 서야 한다면 믿어지시나요? L국 경제가 안정화되고, 국민들이 웃으며 살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고아원도 없이 버려지는 아이들

P지역 믿음의 공동체들은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기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한자리에 모여 기도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시간에 현지 동역자들이 기도를 요청해왔습니다. “아짠(선생님,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초지종을 들어 보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살다가 이혼을 하면서 중간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L국에는 고아원이 없습니다.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은 주변 친척들이 데려가거나 절에 보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에 보내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 웃는 모습이 사랑스러운 P지역 아이들. 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음. 제공: K선교사

그렇게 버려져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7세 아이, 12세지만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학교에 다니고 친척집들을 떠돈 형제의 이야기는 저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저희에게 아이를 책임져 달라며 놓고 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길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나누어 맡으라는 정부의 명령으로 곧 저희 학교 기숙사로 들어오게 될 7세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사이에 들려오는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소식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책임감이 들게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많은 수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겠지요. 또한 365일 24시간 함께 해야 하기에 책임감도 필요하고, 이 아이들이 먹고, 자고, 공부하고 지낼 수 있는 재정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에 함께 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또한 도움을 받는 아이들도 다시금 웃음을 찾으며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GNPNEWS]

L국=K선교사



▲ 주유소에서 기름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늘어난 오토바이 행렬. 제공: K선교사

• 4면에 이어 Interview

모태신앙인에게 이방인처럼 복음 전하면 어려워

예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면 백과사전 읽자고 하고, 학급회의 때, 체육시간 없애고 책을 읽자고 할 정도였어요. 다방면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사를 보여주셔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글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써낼 수 있는 것도 타고난 게 아니라 그레이스교회나 마스터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거 같아요. 강해설교는 본문을 삶과 연관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여러 부분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칼럼을 쓰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책으로 내게 되면서 더 속도를 내게 된 것도 있어요.”

- 아쉽게도 인터뷰를 마쳐야겠는데요, 끝으로 이 인터뷰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한국에 와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진리 안에 깨어 계신분들은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한 분은 한국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이라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전과가 있든,

삶이 어떻게 상관없이 일정한 자격증만 따면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이래서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죠. 성경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나오는데 말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성경의 기준을 떠나지 않고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됐으면 해요. 성경은 들러리나 목회에 필요한 도구 정도가 아니죠.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대로 하는 것만이 참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런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 성경대로 한다고 할 때, 지금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교회는 목사와 집사로 구성된다는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 뭔지, 거듭난다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려줘야 해요. 한국 교회의 특징은 토속신앙과 기독교가 섞여 있어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불게 해주세요.’ 이런 걸 예수님만 붙여서 하는 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교회가 돼야 해요. 그 복음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 위드 바이블 캠프에서 조정의 목사. 제공: 유평교회

지고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기도제목을 나눠주세요.

“저희가 아직 젊지만 다음세대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3세대 법칙이 있다고 해요. 모든 신학교가 3세대 정도되면 변질된다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로 3세대 정도되면 타협하기 시작하고, 변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도 성도들에게 다음세대를 제대로 세우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제대로 서야 되고, 유평교회 성도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지금처럼 진리를 사랑해서 끝까지 진리를 지키기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고, 훗대를 옮기지 않고 끝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깨끗하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시기에 좋은 겸손한 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 장시간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GNPNEWS]

C.K.

복음의 능력

죄에서 멀어지기 위하여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다. 자기부인을 통해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회개를 기대할 수 없다. 모든 유혹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나쁜 것은 악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다. 희망의 싹이 보일 때 악한 친구들이 그것을 짓밟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당신이 악한 친구들을 끊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 그들을 버리든지 생명을 버리든지 선택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어주신다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의 친구들이 바뀌는 것이다.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악한 친구들을 피하라. 그들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당신을 꾀는 자들이다.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들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 [GNPNEWS]

돌이켜 회개하라 (조셉 얼라인)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복음에 대한 두 반응 (3)

진정한 복은 ‘복음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복음이 강력하고 단순하며 분명하게 외쳐지면 못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동일한 축복의 복음을 듣고도 마음 중심에 있는 바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십자가의 도가 영원, 천국, 거룩함, 소망... 이런 것 없이 악을 품고 사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무식한 얘기로 들리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 즉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야말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가 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

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2~24) 유대인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인 헬라인은 인간 수준으로 이해되는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처럼 똑같은 복음을 들려주고, 손에 잡힐 듯 가져다 주어도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반응이 천양지차 달라진다. 마음으로 듣는 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마 13:16)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는 복이 진정한 복이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영원하고 유일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로는 알 수 없

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한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 받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사느냐 죽느냐’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 엄청난 복인 것이다. 2000년 전 다윗의 동네에 나사렛 예수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만 가능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역사 속에 그대로 드러났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베들레헴의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구간에 오



일러스트=이예원

셨을 때 갓난아기의 몸으로 오셨다. 그 때 동방박사가 찾아와 예물을 드렸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의 페르시아나 이란 너머에서부터 머나먼 길을 왔다. 짐작해 보자면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즐비한 구약성경을 매일 끌어안고 살았던 유대인들이야말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들은 끝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오히려 그 옛날 이스라엘 사

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전해졌을 성경의 일부 중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가 유대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원래 있던 별이 아닌 한 별로 동방에 떠오를 것’이라는 희미한 그림자 같은 예언만을 가진 동방사람들이 그 별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순례자처럼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예물로 드리고 왕에게 드리는 경배를 하고 돌아갔다. (2018년 6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2022학년 헤브론원형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안내

헤브론원형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다음세대 선교사들의 행복한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세대 선교사들은 응답하십시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 모집 대상**
 - 2022학년 현재 초등학교 4학년(11세)부터 중학교 3학년(16세) 연령대의 학생. (고등학교 1학년(17세)은 1년 하향지원 가능합니다.)
 -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분명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자발적으로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
- 입학설명회**
 - 2022년 7월 2일(토) 오후 2시~5시, 장소는 「입학 설명회 참가 신청자」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 입학설명회 참가 접수 기간: 2022년 6월 6일(월)부터~2022년 6월 25일(토)
 - 참가신청은 이메일(hebronschool@hanmail.net)로 접수 바랍니다.
 - 입학설명회는 지원하는 학생과 양 부모님 중 한 분은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아래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 원서교부**
 -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만 교부합니다. (입학원서 전형료 5만원)
 - 원서접수기간: 2022년 7월 2일(토)~2022년 7월 22일(금) (22일 소인까지 받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아래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 입학전형 일정**
 - 1차 서류심사 및 1차 합격자 발표: 2022년 7월 30일(토)
 - 2차 2022년 8월 1일(월)~2022년 8월 5일(금) ‘Camp, Go up to Hebron!’ (Camp기간 중 면접과 시험이 포함됩니다.)
 - 2차 합격자 발표: 2022년 8월 6일(토)
 - 3차 최종면접: 2022년 8월 8일(월)~2022년 8월 10일(수) (2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2022년 8월 13일(토)
 - 2022년도 입학식: 2022년 8월 30일(화)
- 문의 및 접수처**
 - ☎10-2461-1718, 010-7323-4641, 070-4369-7656 헤브론원형학교 입학사무처
 - hebronschool@hanmail.net
 - 우)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2길 168-66 헤브론원형학교 (구 시온수양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카르멜디자인

포스터_현수막_로고_홈페이지

idea design

“미자립교회, 선교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www.carmel.company
carmel0316@naver.com

‘카르멜디자인’ 채널 추가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10년 된 흑을 제거하며 진행된 영적 수술

폐암수술을 한 친정 어머니를 돌보느라 한 달 늦게 그리운 가족이 있는 선교지로 돌아왔다. 어느 날 오후 아들과 태권도 놀이를 했는데, 그날 밤부터 아들의 발차기를 당한 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다. 이후 열이 39도가 넘고 해열제로도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현지 병원에 가게 되었고, 간의 기생충 흑이 복강으로 터져 나와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는 기가 막힌 통보를 듣게 되었다. 아마도 10년 이상 된 기생충 흑일 수도 있다는 현지 의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수술 17일째 결국 한국행을 선택했다.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기에, 아픈 와중에 순간순간 모든 결정을 남편 없이 혼자 내려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었다. 내가 감염된 기생충의 수술



일러스트=고은선

에 대해 아는 한국 의료진이 거의 없었다. 무엇보다 주님께 매달렸다. 살려달라고, 열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감사하게 수술 일주일 전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그렇게 아프기 시작한 이후 거의 두 달 만에 간 60%와 쓸개를 절제하고 복부에 터져나온 기생충의 알들과 찌꺼기를 씻어내고 선교지 병원에서 한 복강경 수술로 유착된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6시간가량의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다. 15분마

다 강한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하루 이틀이 지나며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과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과 웃음소리,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미소를 짓게 했다. 이제는 산책할 만큼 많이 회복됐지만, 지나온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아득하다. 난 수술 전 매일 주님과 부흥회를 했다! 온라인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주님과 매일 춤추며 방 안에서 울고 웃으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 사역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 있던 내게 주님은 회개의 눈물과 기쁨을 주셨고, 선교사로서 회의를 느끼고 두 마음을 품고 선교사를 그만두고 다른 것을 해보고 싶어 도망가려 하는 내게, 주님은 '한마음'을 말씀하셨다. 선교지에서 그렇게 갈망하던 주님과의 뜨거운 시간이, 약병지를 한 움큼씩 쥐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 육신의 수술과 영적인 수술이 같이 진행되게 하실 줄이야! 몸은 아프고 피곤했지만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했다. 주님은 내게 '너는 행복자라!' 말씀하셨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함이 영광이라 하셨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나의 욕심과 종교적 야망을 버리고, 주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날마다 깨어지는 깨끗한 질그릇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GNPNEWS] J국, 000 선교사

복음의 소리 316
1670-3160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독교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온라인 교회는 설교에만 집중, 교제와 봉사가 부족합니다

Q 8개월째 온라인 예배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교우들과 관계도 불편할 때가 많고 뒤에서 속닥거리는 모습을 보며 실망감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A 건강한 교회를 분별할 때 대개는 케리그마(설교), 디아코니아(봉사), 코이노니아(교제)의 기둥이 빠르게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고백을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저마다 이 기둥의 강화된 부분과 약화된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믿음으로 힘써야 됩니다.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처럼, 몸 된 교회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성도는 응답 주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에 소속되어 한 몸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교회의 기둥 중, 케리그마(설교)만 치중하는 신앙생활로 이끌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코이노니아)와 자신을 내어드리는 봉사(디아코니아)는 당연히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로 변질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온라인 예배를 허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한 몸된 지체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가운데 허락되는 부득이함입니다. 당신이 단순히 불편하고 힘들어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실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예배만 고수한다면, 당신을 통해 공동체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아닐까요. 주님이 허락하신 연약한 공동체로 편안함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연약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빚어갈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



탈북민 40명의 증언 녹여낸 영화 '리멤버 미' 개봉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9살 소년 '요한'이 모든 것을 잃은 그곳에서 다시금 작은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탈북민들의 실제 증언 '용기 있는 고백'과 함께 그린 '리멤버 미 (True North)'가 오는 29일 개봉된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약 9만 3000명의 조선족과 2000명의 일본인이 북한으로 이주했다. 이는 '지상낙원'이라는 송환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

'지상낙원'이라는 말을 믿고 북한으로 건너간 재일교포들이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약 12만 명이 수감됐고, 여전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녹여낸 '리멤버 미'는 탈북민 40명의 실제 증언을 기초로 제작됐다. 재일교포 시미즈 에이지 한(Eiji Han Shimizu) 감독은 직접 한국·일본·미국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경험한 탈북자들을 만나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10년에 걸쳐 작품을 완성했다. 그간 북한의 실상을 다룬 작품들이 주로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로 표현됐던 것과

는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점 역시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리멤버 미'는 8년 동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실제로 근무했던 한 남성의 고백으로 시작된다. "수용소가 위

성에서 내려다보면 북한의 한 개의 도시같이 보여요."라며 담담하게 전하는 내용은 북한이 현재도 부정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의 규모가 우리가 알고 있던 크기보다 현저히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기억도 하지

못하는 갓난아기 때부터 수용소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자라며 밤낮으로 일했던 인권이 상실된 환경을 알리는 증언이 이어진다. '리멤버 미'는 제44회 안시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경쟁 초청을 시작으로 제22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장편우수상 수상, 제36회 바르샤바국제영화제 자유정신 경쟁 특별언급 부문 수상, 제33회 도쿄국제영화제 월드 포커스 부문 후보 등 전 세계 유수 영화제를 휩쓸었다. [GNPNEWS]



▲ 영화 '리멤버 미' 스틸. 출처: truenorth.watch 캡처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韓, 北에 전시납북 책임 물어야”

지난 8일부터 방한했던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10일 오전 한국의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전시납북 문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납북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며 한국 정부는 전시 민간인 보호 책임이 있는 만

큼 전시납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면담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에 전시납북 문제의 책임을 묻고 연료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납북자의 생사 여부라도 확인해줘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일본 정부와 달리 한국 정부는 납북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북한에 책임을 미루며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무총리 소속 6.25 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발간한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사회저명인사, 정부 관리, 지식인 등 대상의 기획 납북 피해자는 최소 2만 명, 전시동원 납북 피해자는 최소 7만 명인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전후 납북자는 총 3835명으로 이 가운데 3319명이 한국으로 귀환했고 516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시대부터 민주화 전까지의 기간 중 한국에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침해와 인권법 위반과 관련해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알아보고 평가하는 것이 이번 방한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한 기간 동안 다양한 조치들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성공 사례와 문제점을 찾아내 권고 사항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GNPNEWS]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샤임 수틴의 <도축된 소>

“사랑과 용서의 약속, 십자가”

샤임 수틴(Chaim Soutine)은 리투아니아계 유대인으로, 1913년 프랑스로 건너와 활동하였다. 표현주의의 선구자 수틴은 화가 아데메오 모딜리아니의 친구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모딜리아니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던 수틴 또한 유대인 격리 구역 계도에서 자랐으며, 폭력과 차별에 시달렸다. 특히 양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곳곳에 팽배했던 반유대주의의 트라우마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작품도 한층 비극적이고 강렬하게 전개되었다. 한편, 이디시어를 구사할 줄 아는 정통과 유대교 가정에서 자란 그는 성경 이야기에 관련된 비유를 묵시록적인 작품으로 그려냈다. 그러나, 형상적인 작품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전통 때문에, 그의 작품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반항적인, 프랑스인의 눈에는 낯설고 투박한,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주변인과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삶에서 형성된 어둡고 강렬하며, 비극적인 정서는 그의 작품들에서 고스란히 배어난다. 이처럼 주변인이었던 수틴은 파리의 에콜 데 보자르에서 공부하였으나, 실질적인 스승은 루브르 박물관에 걸린 작품들이었다. 특히, 고야, 틴토레토, 렘브란트 등의 작품을 깊이 연구했다. 그의 <도축된 소> 또한, 렘브란트가 반복적으로 다뤘던 소재를 수틴이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렘브란트의 <도축된 소>는 십자가 책형을 비유적으로 그린 작품인데, 이에 비해 수틴의 작품은 십자가의 고통, 수치가 강렬한 색과 거친 붓질에 의해 한층 더 격렬하게 표현되었다. 원래 도축된 소는 ‘돌아온 탕자’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며 잡은 살진 소

와 짐승을 둘로 쪼개어 맺은 고대 중동의 계약식 모두를 가리킨다. 이는 ‘쪼개어 맺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언약(카라트 베리트)’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즉 구원의 약속임을 상기시키는 대상이기도 하다. 유대인이었던 수틴은 아마 도축된 소에 이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무려 열 번 이상 이 주제를 그릴 정도로 여기에 몰입해 있었으니 말이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수치와 모욕으로 얼룩진 자기 삶의 투영일까,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일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깊고 뜨거운 사랑일까. [GN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그림설명: 샤임 수틴, <도축된 소>, 1925년, 유화, 81 x 60cm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우크라이나 난민이 국경 근처에 많이 머물고 있는 이유?

우리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있는 지역 가운데, 어디를 가야 할지 선택해야 했다. 현재 많은 비영리단체(NGO)나 교회, 선교단체들은 난민을 돕기 위해 폴란드나 루마니아를 선택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우리는 헝가리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세계인들에 의해 이미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사이에서 사각지대처럼 관심을 덜 받고 있는 곳이 바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국경 쪽이라는 소식을 현지 사역자들에게 들었기 때문이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공항에 도착 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데브레첸으로 향했다. 부다페스트 공항에서 차로 약 2시간 30분 이동, 난민들이 국경 탈출 이후 모인다는 제2의 도시이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게리와 캐롤린 선교사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온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필요한 숙소와 음식을 조달하기 위해 주변의 교회와 학교와 같은 곳을 찾아가 연결해주며 이들을 돕고 있었다. 또 자신들의 창고와 집을 개방해, 난민들을 섬기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난민 발생 사태에서 혼자서 단독 사역을 할 수도 없고, 실제로 어렵기도 하다. 이 때문

에 보다 많은 정보가 있는 지역의 기관과 교회, 단체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게리 선교사는 말한다. 그의 도움으로 우리는 국경 지역의 난민캠프를 방문했다. 이곳은 고등학교 시설인데, 일부 시설을 숙소로 개조해 난민캠프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 난민을 만날 수 있었다.

난민들은 전쟁이 나서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 나오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물품들이 많다. 머리를 말리는 드라이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류, 신발 등 필요한 것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무엇보다 시급한 건 의약품이다. 하지만 의약품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의약품을 구하려면 처방전이 필요한데, 외국인 신분으로 처방전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약품을 지원해주고 싶은 국가들도 정부의 허락 없이 전달해주는 것도 쉽지 않다.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이들의 필요를 가능해 의약품을 준비해, 가방에 담아서 가져다주기도 한다.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원리원칙만으로는 이들을 도울 수가 없다. 난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 헝가리 데브레첸 고등학교 난민캠프에서. 제공: 최서우 선교기자

중요한 일로 여겨졌다. 이들은 또 시리아 난민들과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 시리아 난민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사랑하는 고국의 재건사업을 위해, 그리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남편과 형제들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했다.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국경에 머물고 있는 것도 여건이 허락되면 하루라도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때문이다.

당연하지만, 다양한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좀 더 집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언어는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 바로 다문화교회이다. 다문화교회는 난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신앙공동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고국의 전쟁과 기근, 그리고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타국으로 가면 너무나 외롭기

마련이다. 또 난민캠프 근처의 현지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타지인이라는 느낌이나 상황이 더 외롭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미 다양한 민족이 섞여있는 다문화교회는 난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형태의 교회 모습이다.

이런 다문화교회 가운데 한 곳, 영국, 미국, 헝가리, 이집트,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약 20개국의 유학생들이 있는 곳을 방문했다. 이들의 셀모임에 참여해 우리가 묵상 중인 룻기에 대해서 나누고 특별히 한국말로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기도 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위로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것이며, 이것이 그들을 예수의 가문으로 인도하는 데에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GNPNEWS]

최서우 선교기자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2. 5. 25 ~ 6. 15 (가나다 순)
개인
권순호 권혜령 김광희 김다경 김득기 김사회 김선례 김선희 김성훈 김숙자 김신애 김애심 김영순 김유남 김정희 김한나 김형숙 김혜신 노은옥 박경희 박민숙 박신희 신경순 신혜경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우 석 유영권 이상연 이영옥 이은주 이장원 이주선 이진희 이흥우 장근혜 정금자 조병숙 조형광 차익수 차인순 최근희 최점옥 최정숙 하은숙 홍교집 무명

교회 및 단체
반석중앙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샘순교회 샘물교회서현교회교정팀 쉐 시흥교회 신한테크 양문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양덕원갈리교회 오예교회 은혜신일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주소망교회 참종양터교회 처음사랑교회 함안순복음교회 햄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웅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